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22호【루계 제25465호】주제 105(2016)년 11월 17일(목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황금해력사창조의 선구자들이 올려가는 만선의 배고동 소리와 더불어 펼쳐진 물고기대풍, 희한한 《이채어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주의바다향기 차넘치는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 사업소와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미해복구 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를 이룩한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기쁨을 더해줌에 조국의 동해전역에서 어로전투의 승전포성이 날마다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

사나운 날바다를 헤가리며 긴장한 어로전투를 벌려 지난 11월 7일까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년간 물고기잡이목표를 침범해낸 인민군대안의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도루메기 집중어로전투기간 날마다 최고 1만여t의 도루메기를 잡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그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례없는 물고기잡이성공을



이룩하고있는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 사업소와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 사업소가 현대적으로 건설되었으며 최근 며칠사이 수천t의 도루메기를 잡았다는 보고를 받고 온 나라 인민들에게 희한한 물고기대풍소식을 한시바빠 전하고싶어 만사를 제쳐놓고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이차 오면서 배전에서 바라보니 수산사업소와 문화주택들이 한쪽의 그림처럼 볼만 하였고, 통해지구에 황홀경을 이룬 어촌마을이 일떠섰다고 대안쪽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모든 대상

을 면 후날에도 손색없이 훌륭히 건설하였다고 하시면서 한해사이 이 지구가 천지개벽되었다고, 당의 결심이라면 바다도 메우고 산도 뛰 옮기는 인민군대의 결사관철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에 머리가 숙여진다고 말씀하시였다.

물고기대풍을 일으키고있는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사업소는 수산물 생산과 어로공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진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명당자리에 수산사업소의 위치도 잡아주시였으며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과 견해주시었을뿐만 아니라 지난해 3월

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결심은 곧 조선의 실천이라는 결사관철의 정신을 안고 산악같이 펼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큰 배들을 여러척 현충계류할수 있는 부두와 방파제, 물고기부림과 저장, 가공을 위한

물고기대풍을 일으키고있는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사업소는 수산물 생산과 어로공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진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명도에 의하여 통해지구에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건축물을 파시하며 멋들어지게 일떠선 조선

인민군 5월27일수산사업소는 수산물 생산과 어로공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진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명당자리에 수산사업소의 위치도 잡아주시였으며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과 견해주시었을뿐만 아니라 지난해 3월

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결심은 곧 조선의 실천이라는 결사관철의 정신을 안고 산악같이 펼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큰 배들을 여러척 현충계류할수 있는 부두와 방파제, 물고기부림과 저장, 가공을 위한

2 번 으 로 계 속

